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와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유미(李裕美)**

정주리(丁珠利)***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와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G광역시 3개 고등학교 2학년 551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집단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남학생 집단과는 달리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지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 교육과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을 낮추는 상담 개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성별에 따라 다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고등학생,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부와 완벽주의, 시험불안

* 이 논문은 이유미(2016)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누구나 학교를 다니는 동안, 시험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뜨거운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경쟁의 영향으로 시험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받는 학업과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시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클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응답자 수의 59.5%가 공부, 성적, 적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다(통계청, 2014). 이처럼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된 스트레스는 시험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은 시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시험불안이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반응을 말한다(조수철, 1991; Spielberger, 1972). 시험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외적인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이수현, 2010). 시험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메타 분석한 임신일(2011)은 시험불안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 중, 환경적 요인에 속하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시험불안에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밝혔다.

부모의 성취압력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교육적인 관심, 성취 기대 및 역할 기대로(홍은자, 2001), 부모가 부여하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 요구, 기대 등의 교육적 관심은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자녀에게는 학업성취압력으로 지각될 수 있다(김기정, 1985). 이러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시험불안과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노정림, 2006;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다른 선행연구들 역시 결과 위주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적에 관한 압력과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곽재은, 2012; 김희정, 2011; 노원경, 2003; 노정림 2006, 황상미, 정현희 2012).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시험불안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자녀들은 자신이 정해 놓은 기준 외에도 외부, 특히 부모가 세운 기준과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시험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노치경, 황성훈, 2013). 이러한 부모의 기준과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들은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Burns, 1980),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Hamachek, 1978). 완벽주의란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대수준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요구하며 자기비판이 심한 강박적인 성향을 말하는데

(Hewitt & Flett, 1991b), 이러한 완벽주의는 어린 시절 요구가 많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연구자들은 보고하고 있으며(노정림, 2006; Hamacheck, 1978),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유사한 부모의 기대, 기준, 통제 등이 자녀의 완벽주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원혜, 문은식, 2004; Fleet, Hewitt, & Singer, 1995; Hamachek, 1978). 완벽주의 성향 역시 시험불안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염시창, 박현주, 2005; 조영미 2003; Saddler & Buley, 1999), 시험불안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박병기, 임신일, 2010; Stober, Feast, & Hayward, 2009).

Hewitt와 Flett(1991b)는 완벽주의를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제안하면서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도달하고자 하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자신이 부여한 것이 아닌 타인이 부과한 것으로 인식하며 타인에 대한 인정, 승인을 추구하고 타인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징을 말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시험불안 간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지향과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시험불안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나오거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반면(김지윤, 이동귀, 2013),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일관되게 낮은 자존감, 유대감, 높은 수준의 결핍감, 등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herry, Law, Hewitt, Flett, & Besser, 2008). 또한 Flett, Greene 과 Hewitt(2004) 역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와 불안 및 민감성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또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박명선, 2002; 박재명, 2003; 이현주, 손원숙, 2013; 정아현, 강민주, 2014; 조영미, 2003; Stoeber et al., 2009). 이처럼 선행 연구결과들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시험불안 간의 관계(노정림, 2006;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의 관계(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보여준 선행 연구 결과들(곽재은, 2012; 정종희 외 2009; 오지은, 추상엽, 임성문, 2009)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완벽주의를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 생활적응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정서 및 적응 상태와 관계해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나(박유미, 임영진, 2015) 시험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완벽주의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최원혜, 문은식, 2004). 특히, 지금까지 시험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시험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성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

해보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더 많이 지각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기예, 우수경, 2015; 박상아, 2014)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이명주, 2010)도 있고,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조형운, 2013)도 있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지각에서 있어 보고된 성차가 일관되지 않다. 시험불안의 경우에서도 대체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시험불안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김세진, 2011; 김희정, 2011; Zaheri, Shahoel, & Zaheri, 2012)도 있지만,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김기예, 우수경, 2015; 박상아, 2014; 조형운, 2013)도 있기에 이 역시 시험불안에서 성차와 관련하여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완벽주의 성향에서 성차를 살펴본 연구들은 소수(박진미, 2003; 조영미, 2003)이며,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성차를 본 연구들은 드물다(박유미, 임영진, 2015). 만약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거나 이에 따라 시험불안과 완벽주의가 관여하는 양상이 다르다면,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개입을 위해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시험불안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시험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시험불안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성별에 따라 다른 개입이 필요한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시험불안

시험의 결과로 자신의 수행능력을 평가받는 청소년들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압박과 부담감으로 인해 시험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처럼 결과를 중시하고, 개인 간 경쟁이 치열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시험점수를 기준으로 타인과 비교당하고, 성취에 따라 사회적인 인정

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은 높은 수준의 시험불안을 느낄 수 있다(노원경, 2003).

시험불안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살펴보면, Mandler와 Sarason(1952)은 시험불안을 개인이 중요하다 느끼는 평가적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해 갖게 되는 정서적 반응과 생리적 변화를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 조수철(1989)은 시험불안이란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정의하며, 시험불안은 Spielberger(1973)가 구분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모두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Deffenbacher(1980)은 시험불안에 시험에 대한 걱정과 같은 감정적 반응과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감이나 불안 같은 신체적 반응들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들을 기초하여 Liebert와 Morris(1967)는 시험불안을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시험불안 안에는 인지적 요소인 걱정(worry)과 생리적-감정적(physiological-affective) 요소인 정서(emotionality)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김문주, 이해성, 1991; 최진승 1988; Deffenbacher, 1980; Liebert & Morris, 1967). 걱정 요인은 시험에 대한 모든 인지적 걱정을 포괄하며, 성취에 대한 기대와 바람, 실패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낮은 자신감, 과제와 관련되지 않은 부적절한 생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정서 요인은 시험 상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감정적, 신체적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나친 긴장으로 인한 기억력 감소, 빠른 심장 박동, 식은 땀, 소화기능의 장애, 극심한 불안감 등이 포함된다(Liebert & Morris, 1967; Morris, Davis, & Hutchings, 1981). 이러한 시험불안의 걱정과 정서 요인은 적정 수준에서는 주의집중도를 높여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arrows, Dunn, & Lloyd, 2013). 따라서 수능이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 이를 위해 수차례 치러야 하는 시험들에 대한 중압감이 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험불안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Murray(1938)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내적·심리적 요인과 외적·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내적·심리적 요인은 욕구이고 외적·환경적 요인은 압력으로, 이 두 요인은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심리적인 힘이 된다. 이처럼 Murray의 정의에 따라 압력과 욕구가 사람들과의 행동을 결정해 주는 관계라고 볼 때, 한 사람의 욕구는 타인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곽재은, 2012). 즉,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는 자녀에게는 큰 압력으로 지각될 수 있다(김경옥, 1992).

한국에서는 자녀가 성공하는데 부모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며, 한국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높은 학업적 기대를 가지며 자녀들에게 학업성취압력을 가하고 있다

(박영신, 김의철, 2003;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즉,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며 학업성적에 대한 높은 기대와 뜨거운 교육적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기대와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자녀에게 과도한 성취압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는 자녀들에게 커다란 부담감으로 느껴지게 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적절한 기대 혹은 압력을 받는다고 지각하면,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촉진적인 작용을 할 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느끼는 동기, 흥미, 태도, 가치관 등에도 영향을 준다(김경옥, 1992). 그러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나친 압력을 받게 되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결과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시험을 두려워하게 되고 시험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arason, 1972). 따라서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강유진, 2013; 노원경,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3. 사회부과 완벽주의

Hewitt와 Flett(1991b) 및 Burns(1980)는 완벽주의란 자신의 능력에 비해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며 자신의 가치를 모두 생산성과 업적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며, 자신의 수행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Hewitt와 Flett(1991b)는 완벽주의적 대상이 누구인가 또는 완벽주의적 행동이 누구에게 귀인 되는가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 구분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매우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과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향을 말하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부여하여 타인의 완벽함을 중요시하며 그 사람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했다고 믿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거라는 신념과 지각을 반영하다(김윤희, 서수균, 2008; 변석희, 2015).

Hewitt와 Flett(1991b)의 세 차원의 완벽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면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김현정, 손정락, 2006; 한기연, 1993; Hewitt & Flett, 1991a; Hewitt & Flett, 1993).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을 향한 비난 및 신뢰부족, 적대감 등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개념으로 비취졌으나(Hewitt & Flett, 1993), 우울이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문경, 1997).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여 왔다(신지은, 이동귀, 2011; Hewitt & Flett, 1993). 예를 들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변석희, 2015; 전명임, 이희경, 2011), 불안 중에서 특성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김지연, 2010; 변석희 2015),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예측하며(김현정, 손정락, 2006; Hewitt & Flett, 1993), 자살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Hewitt, Newton, Flett, & Callander, 1997).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Einstein, Lovibond, & Gaston, 2000).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지향과 타인지향 차원의 완벽주의보다 심리적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타인의 인정에 더 지나치게 집착하는 요인으로(Enns & Cox, 2002)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기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예측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G광역시에 소재한 3개의 고등학교 2학년 642명을 대상으로 지필식 질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무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91부를 제외한 551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 중 남학생은 189명(34.3%), 여학생은 362명(65.7%)이었으며, 인문계열은 264명(47.9%), 자연계열은 287명(52.1%)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도

김기정(1985)의 '부모양육태도 검사'와 김경옥(1992)의 '성취압력 검사'를 재구성한 강영철(2003)의 측정도구를 고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지각정도에 따라 같은 압력이라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강영철, 2003).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압력정도를 보고하게 하였다. 하위요인은 공부 중심형, 시간 관리형, 성적 중심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5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하위요인인 공부 중심형 .85, 시간 관리형 .61, 성적 중심형 .82였고, 전체는 .91이었다.

2)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Hewitt와 Flett(1991a)가 제작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이미화(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이며, 총 45문항 중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차원인 15개 문항만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Cronbach' α 값은 .81이었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단일요인 척도이어서 항목 묶기(item parceling)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항목 묶기를 하는 방법 중에서 임의할당(random assignment)법을 사용하여 5개씩의 문항으로 결합하여 세 개의 측정변인을 만들었다.

3) 시험불안 척도

Spielberger가 제작한 시험불안검사(Test Anxiety Inventory: TAI)를 최진승(1988)이 한국문화와 언어에 맞도록 적합하게 번역한 것을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시험불안의 걱정(worry)이라는 인지적 요인을 측정하는 10문항, 정서(emotionality)라는 감정적 요인을 측정하는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하위요인인 걱정은 .87, 정서는 .89였고, 전체는 .93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G광역시 3개의 고등학교 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91부를 제외한 551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과 AMOS 2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변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척도 신뢰도 분석을 위한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였다. 기술통계에서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값과 함께 각 변인들의 정규분포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로, 전체집단과 각 성별집단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모수를 추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고, 검증된 모형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IV. 연구결과

1. 전체집단에서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상관계수는 .17 ~ .97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n = 55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2	.968***										
3	.770***	.662***									
4	.911***	.828***	.583***								
5	.510***	.485***	.387***	.483***							
6	.359***	.355***	.246***	.333***	.830***						
7	.437***	.413***	.357***	.401***	.892***	.671***					
8	.405***	.387***	.300***	.386***	.661***	.397***	.511***				
9	.288***	.278***	.215***	.268***	.398***	.394***	.340***	.258***			
10	.312***	.294***	.239***	.298***	.393***	.389***	.330***	.247***	.951***		
11	.239***	.237***	.172***	.214***	.367***	.362***	.319***	.246***	.956***	.818***	
평균	42.31	24.30	6.78	11.21	56.40	18.84	18.36	20.18	60.50	31.22	29.27
표준편차	12.01	6.75	2.51	3.87	10.44	4.15	4.00	3.61	15.28	7.80	8.21
왜도	.109	-.056	.474	.184	.035	-.052	-.259	-.062	-.067	-.094	.019
첨도	-.318	-.342	-.028	-.628	.580	-.340	-.220	-.186	-.197	-.281	-.264

주. 1 부모의 학업성취입력 2 공부중심형 3 시간관리형 4 성적중심형 5 사회부과 완벽주의 6 사회부과1 7 사회부과2 8 사회부과3 9 시험불안 10 걱정 11 정서. *** $p < .001$.

2. 전체집단의 구조모형 검증

먼저, 측정모형에서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을 때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변인의 표준화요인 적재량의 범위는 .583~.954이었고, C.R.의 범위도 11.119~14.123이었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확인하였을 때도 .558~.822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다음으로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VE 값이 잠재변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였을 때, 잠재변인들 간 상관계수 제곱값의 범위는 .105~.279로 AVE이 이 값들보다 크기 때문에 변별타당도 역시 확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해 주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을 매개하는지 알아본 구조방정식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 간 χ^2 의 차이는 4.727 이고 자유도의 차이가 1이며, p 값이 .001 보다 적어 유의하였으므로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집단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다.

<표 2> 전체집단의 구조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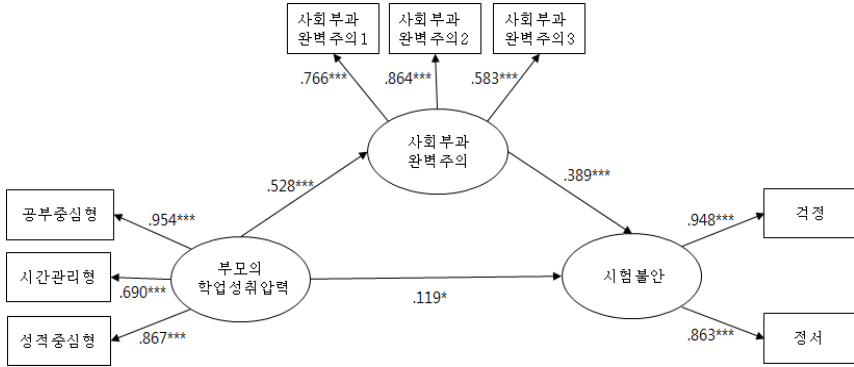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56.708	17	.000	.972	.983	.065
경합모형	61.435	18	.000	.971	.981	.066
차 이	04.727	1	.030			

최종 모형으로 채택된 부분매개모형에서의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표 3>에, 구조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각 변인 간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시험불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체집단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시험불안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β)	t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261	.024	.528	10.732***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시험불안	.905	.133	.389	6.817***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시험불안	.136	.060	.119	2.275***

*p < .05. ***p < .001.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p < .05. ***p < .001.

[그림 1] 전체집단의 최종모형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절차는 원자료(N = 551)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거쳐 시험불안으로 가는 매개효과($\beta = .205, p < .001, 95\% \text{ CI} = .131 \sim .29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체집단의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p	BC 95%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시험불안	.236	.205	.040	.001	.131	.291

3.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각 변인들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5>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969***	.775***	.909***	.476***	.305***	.396***	.379***	.247***	.268***	.206***
2	.965***		.673***	.828***	.447***	.299***	.367***	.364***	.237***	.249***	.207***
3	.754***	.631***		.578***	.367***	.212***	.338***	.280***	.195***	.226***	.148***
4	.909***	.818***	.579***		.459***	.288***	.369***	.359***	.227***	.251***	.184***
5	.564***	.544***	.417***	.518***		.818***	.895***	.650***	.374***	.359***	.357***
6	.454***	.452***	.304***	.412***	.852***		.656***	.365***	.367***	.361***	.342***
7	.500***	.485***	.382***	.447***	.886***	.700***		.501***	.330***	.301***	.330***
8	.470***	.443***	.344***	.453***	.684***	.452***	.538***		.234***	.214***	.234***
9	.429***	.416***	.288***	.410***	.475***	.465***	.389***	.310***		.955***	.958***
10	.437***	.420***	.282***	.432***	.481***	.457***	.407***	.316***	.944***		.831***
11	.378***	.370***	.266***	.348***	.422***	.426***	.333***	.274***	.951***	.795***	
평균	44.85	25.71	7.10	12.03	57.31	19.04	18.77	20.12	58.83	30.87	27.95
표준	40.98	24.57	6.61	10.79	55.93	18.74	18.15	20.21	61.37	31.40	29.96
편차	11.93	6.82	2.47	3.82	10.70	4.31	3.97	3.84	13.96	7.10	7.63
편차	11.84	6.60	2.52	3.84	10.29	4.07	4.00	3.49	15.87	8.15	8.43
왜도	-.057	-.233	.484	-.057	-.114	-.277	-.342	-.288	-.114	-.144	.010
	.196	-.016	.487	.318	.111	.077	-.218	.099	-.088	-.093	-.021
첨도	-.345	-.296	.243	-.715	1.168	.573	.824	.078	.130	.029	.042
	-.200	-.268	-.135	-.453	.298	.240	-.034	.228	-.335	-.419	-.384

주. 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2 공부중심형 3 시간관리형 4 성적중심형 5 사회부과 완벽주의 6 사회부과1 7 사회부과2 8 사회부과3 9 시험불안 10 걱정 11 정서. 대각선 하단은 남학생(n=189) 집단에서 상관계수이며, 대각선 상단은 여학생(n=362) 집단에서 상관계수임. 남학생 집단의 기술통계량은 상단에 여학생 집단의 기술통계량은 하단에 제시. ***p < .001.

4. 잠재평균분석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남녀 두 집단 간 측정모형에서 위계적으로 구인동등성을 검증하였다. <표 6>에 제시한 것처럼 형태 동일성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하여 형태 동일성 가정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측정 동일성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측정 동일성 모형에서 적합도 지수들이 개선되어 측정 동일성 가정 또한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절편 동일성을 확인하였을 때 측정 동일성 모형과 절편 동일성 모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Delta \chi^2=15.685$, $\Delta df=5$, $p<.01$), 적합도 지수는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절편 동일성 가정도 성립한 것으로 보였다. 세 가지 가정이 모두 성립됨에 따라 남녀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비교를 위해 요인분산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을 때, 절편 동일성 모형과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적합도 지수 역시 양호하였다.

이처럼 남녀 집단 간 잠재평균 비교를 위한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남학생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여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잠재평균의 효과크기(Cohen's d)를 산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서 효과크기는 작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 간 측정모형의 다집단 요인분석 결과

	χ^2	df	$\Delta \chi^2$	Δdf	TLI	CFI	RMSEA
형태 동일성 모형	70.515	34			.976	.985	.044
측정 동일성 모형	76.293	39	5.778	5	.978	.985	.042
절편 동일성 모형	91.978	44	15.685**	5	.975	.980	.045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	96.084	47	4.106	3	.976	.980	.044

***p < .01.

<표 7>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과 효과크기

구 분	잠재평균(LM)		공통분산	d
	남학생 (n=189)	여학생 (n=36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0	-2.17	39.87	.34
사회부과 완벽주의	0	-.11	.45	.16
시험불안	0	1.02	51.64	-.14

5.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 검증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표 9>에서 보듯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이 TLI와 CFI의 값이 .90 보다 높고 RMSEA가 .08 에 근접하여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 χ^2 값의 차이가 6.085 로 유의하여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두 모형 간 χ^2 값의 차이가 1.535 로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모형이 간명성이 높은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결과적으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이 최종모형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19.696	17	.290	.994	.997	.029
경합모형	25.781	18	.105	.985	.990	.048
차 이	06.085	1	.014			

<표 9>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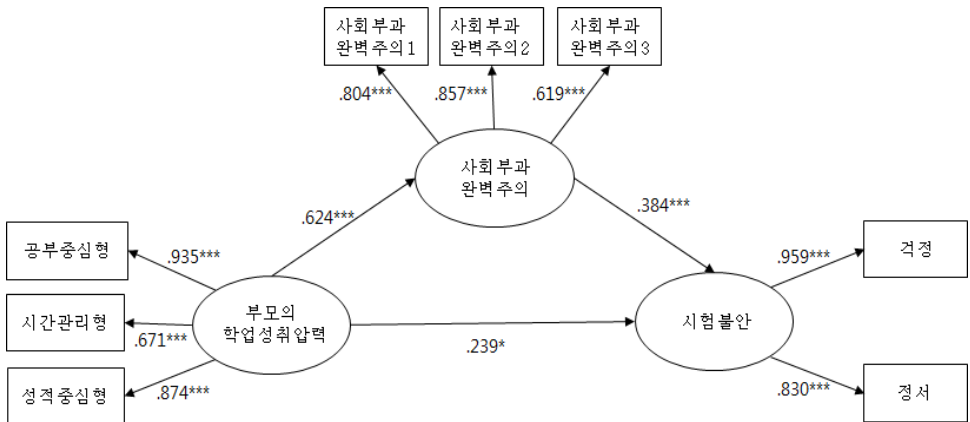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49.818	17	.000	.964	.978	.073
경합모형	51.353	18	.000	.966	.978	.072
차이	01.535	1	.215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산출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고 남학생 집단의 최종모형은 [그림 2]에, 여학생 집단의 최종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부분매개모형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이르는 경로($\beta = .624, p < .001$),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시험불안에 이르는 경로($\beta = .384, p < .00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서 시험불안에 이르는 경로($\beta = .239, p < .05$)가 모두 유의하였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완전매개모형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이르는 경로($\beta = .474, p < .001$)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시험불안에 이르는 경로($\beta = .440, p < .001$)가 유의하였다.

<표 10> 남학생 집단의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β)	t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339	.044	.624	7.737***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시험불안	.755	.196	.384	3.844***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시험불안	.255	.101	.239	2.538***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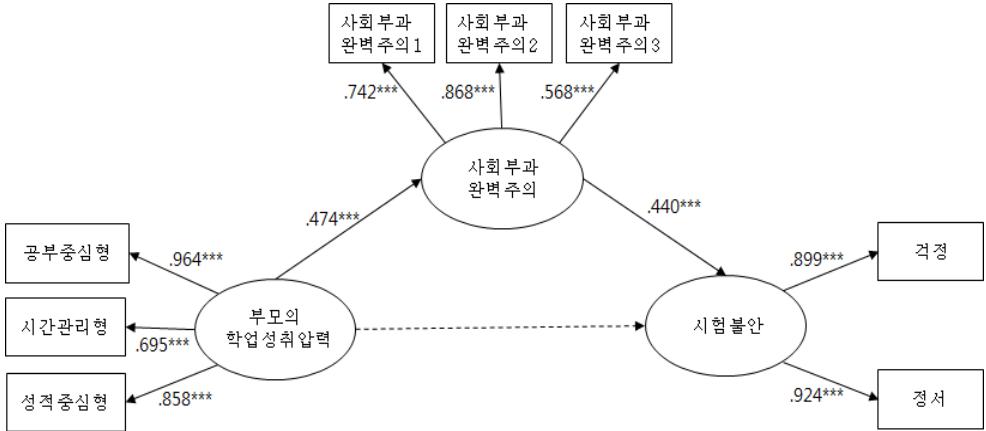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 $p < .05$. *** $p < .001$.

[그림 2] 남학생 집단의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

<표 11> 여학생 집단의 최종모형(완전매개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β)	t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0.225	.029	.474	7.723***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시험불안	1.067	.155	.440	6.878***

***p < .001.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p < .001.

[그림 3] 여학생 집단의 최종모형(완전매개모형)

전체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거쳐 시험불안으로 가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남학생 집단의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p	BC 95%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시험불안	.256	.240	.072	.002	.109	.397

<표 13> 여학생 집단의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p	BC 95%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시험 불안	.214	.183	.046	.000	.106	.289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 3개 고등학교 2학년 551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시험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고등학생들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와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후, 성별에 따른 적합한 구조모형을 살펴 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사회부과 완벽주의, 시험불안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들(노원경, 2003; 노정림, 2006; 오지은, 추상엽, 임성문, 2009; Flett et al., 1995; Frost, Lahart, & Rosenblate, 1991) 과 자녀들의 시험불안과 부모의 성취압력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노원경, 2003; 노정림, 2006;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황상미, 정현희, 2012; Sarason, 1972),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박명선, 2002; 박재명, 2003; 이현주, 손원숙, 2013; 정아현, 강민주, 2014; 조영미, 2003; Saddler & Buley, 1999; Stober et al., 2009) 과도 일치한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시험불안 간의 각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변인들에서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잠재평균분석 결과,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성 역할 가치관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부모의 과잉기대를 더 받게 되는 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으며(강영철, 2003),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이 부모의 기대에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기예, 우수경, 2015; 김세진, 2011; 박상아,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시험불안에서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시험불안에서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박상아, 2014; 박유미, 임영진, 2015; 조형운, 2013)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역시 선행연구(박유미, 임영진,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예언변인으로, 시험불안을 결과변인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집단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이 높아지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시험불안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오지은, 추상엽, 임성문, 2009; Flett et al., 1995).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학업적인 성취압력에 따라 자녀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과도한 성취압력은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분투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게 하고, 이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걱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험불안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과잉 기대나 간섭보다는, 자녀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목표와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모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청소년에게도 타인이나 부모의 기준에 맞추는 목표가 아닌,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줌으로써 시험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모형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이, 여학생 집단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각 변인들의 점수에서만 성차를 살펴본 선행연구(박진미, 2003; 박유미, 임영진, 2015; 이경희, 2010; 조영미, 2003)들과 차별화된 결과로, 변인들의 관계에서도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학생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와 함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여전히 시험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부모의 과도한 학업성취압력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목표와 기준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촉진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타인이 세운 높은 기준에 더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비판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경향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에게 바라는 점과 기대하는 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험불안을 낮추도록 교육이나 상담현장에서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Lloyd, Schmidt, Khondoker, Tchanturia(2015)가 메타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확인한 인지적 행동치료 접근을 하나의 개입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지역과 학교, 학년을 표본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학년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유출할 수 있으므로 표집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정확한 시험불안 연구를 위해서는 측정시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과 후의 불안 정도 차이를 비교하는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여러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지만,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므로 연구 대상자의 지각에 의존한 반응을 토대로 측정하였기에 응답자의 반응태도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부모의 보고와 자녀의 실제적인 인식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으로 첫째,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생의 시험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적 성향을 통해 시험불안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험불안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먼저 자신이 가하는 압력 정도를 점검하고, 부모의 과도한 학업성취압력이 오히려 자녀의 시험불안을 높일 수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관련하여 학교나 상담 현장에서 시험불안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낮출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참고문헌

- 강영철(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강유진(2013). 부모의 학습관여와 성취압력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곽재은(201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성취압력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의 매개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김경옥(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기예, 우수경(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시험불안 및 우울. **아동보육연구**, 11(1), 37-53.
- 김기정(1985).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23(2), 35-52.
- 김문주, 이혜성(199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1), 24-31.
- 김세진(201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및 자아존중감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윤희, 서수균(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지연(2010).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지윤, 이동귀(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1), 63-82.
- 김현정, 손정락(2006).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반복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183-205.
- 김희정(2011). 초등학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4(2), 47-65.
- 노원경(2003). 중학생의 시험불안 영향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노정림(2006).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노치경, 황성훈(2013). 고교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시험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학업자아개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3), 55-77.
- 문경(1997). 완벽주의 차원과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상담**, 17(0), 82-102.
- 박명선(2002). 완벽주의 성향과 시험불안,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 박병기, 임신일(2010). 시험불안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4(4), 875-894.
- 박상아(2014). 부모의 성취압력과 청소년의 불안: 부모-자녀 애착과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박유미, 임영진(2015).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1), 117-128.
- 박재명(2003). 중학생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박진미(2003). 완벽주의 성향과 시험불안의 관계: 중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변석희(2015).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신지은, 이동귀(2011). 고등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자기은폐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2), 55-79.
- 염시창, 박현주(2005). 일반계 여고생의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19-35.
- 오지은, 추상엽, 임성문(2009). 부모의 학업적 성취압력과 청소년 자녀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및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0(4), 209-237.
- 이경희(2010).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귀인성향 및 진로 정체감과 시험불안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이명주(2010). 초등학생의 부모학업성취압력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시험불안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이미화(2001).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수현(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참여형태와 시험불안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현주, 손원숙(2013). 고등학생의 자기지향과 타인지향 ·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자기조절학습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219-239.
- 임신일(2011). 시험불안 메타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전명임, 이희경(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1), 67-83.
- 정아현, 강민주(2014). 완벽주의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1), 67-76.
-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2009).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77-393.
- 조수철(1989). 시험불안의 측정. **신경정신의학**, 28(4), 668-667.
- 조수철(1991). 시험불안의 개념과 이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1), 3-10.
- 조영미(2003). 청소년의 완벽주의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형운(2013).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수험생 자녀의 자아분화, 성취압력 지각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원혜, 문은식(2004).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18(1), 23-35.
- 최진승(1988). 일반불안, 시험불안, 학업불안, 수학불안과 수학성적과의 공접 및 인과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통계청(2014). 사회조사: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13~24세 인구), www.kostat.go.kr > 보건 · 사회 · 복지 > 사회 > 사회조사 > 가족 > 2014.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홍은자(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상미, 정현희(2012).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1-20.
- Barrows, J., Dunn, S., & Lloyd, C. A. (2013). Anxiety, self-efficacy, and college exam grades.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 204-208.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34-57.
- Deffenbacher, J. L. (1980). Worry and emotionality in test anxiety. In I. G. Sarason (Ed.), *Test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111-128). Hillsdale, NJ: Erlbaum.
- Einstein, D. A., Lovibond, P. F., & Gaston, J. E. (2000).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emotional symptoms in an adolescent sampl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2(2), 89-93.

- Enns, M. W., & Cox, B. J. (2002). The nature and assessment of perfectionism: A critic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9-10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lett, G. L., Green, A., & Hewitt, P. L. (2004). Dimension of perfectionism and anxiety sensitivity.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2*(1), 39-57
- Flett, G. L., Hewitt, P. L., & Singer, A. (1995).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51*(1), 50-60.
- Frost, R. O., Lahart, C. M., & Rosenblate, R. (1991).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A study of daughters and their par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6), 469-489.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Tatham, R. I.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rson Prentice Hall.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5*(1),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101.
- Hewitt, P. L., & Flett G. L. (1991b).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58-65.
- Hewitt, P. L., Newton, J., Flett G. L., & Callander, L. (1997).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2), 95-101.
- Liebert, R. M., & Morris, L. W. (1967).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test anxiety: A distinction an some initial data. *Psychological Reports, 20*(3), 975-978.
- Lloyd, S., Schmidt, U., Khondoker, M., & Tchanturis, k. (2015). Can psychological intervention reduce perfectionism?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3*(6), 705-731.
- Mandler, G., & Sarason, S. B. (1952). A study of anxiety and lear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2), 166-173.
- Morris, L., Davis, M., & Hutchings, C. (1981)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anxiety:

Literature review and a revised worry-emotionality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4), 541-555.

Murray, H. A. (1938). *Exploration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addler, C. D., & Buley, J. (1999). Predi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4*(2), 686-688.

Sarason, I. G. (1972). Experimental approaches to test anxiety: Attention and the use of information.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2, pp. 121-140). New York: Academic Press.

Sherry, S. B., Law, A., Hewitt, P. L., Flett, G. L., & Besser, A. (2008).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the social disconnection: A preliminary test of social disconnec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5), 339-344.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1, pp. 23-49). New York: Academic Press.

Spielberger, C. D. (197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Stober, J., Feast A. R., & Hayward, J. A. (2009).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nd test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5), 423-428.

Zaheri, F., Shahoel, R., & Zaheri, H. (2012). Gender differences in test anxiety among students of guidance schools in Sanandaj, Iran. *Wudpecker Journal of Medical Sciences, 1*(1), 001-005.

* 논문접수 2016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1일 / 2차 심사 2016년 5월 16일 / 게재승인 2016년 6월 3일

* 이유미: 전남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에 있다. 청소년의 행복,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관계, 청소년 성 교육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E-mail: youmeare@hanmail.net

* 정주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교육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긍정심리, 진로상담, 자기자비, 상담자 자기돌봄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E-mail: jjoeng@jnu.ac.kr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Test Anxie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Lee, You-mee**

Joeng, Ju Ri***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 among parental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test anxiety in a sample of high school students.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test anxiety. Data from 551 second year students in three high schools in G city were analyzed.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scale,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ubscale of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and the Test Anxiety scale.

The result of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that parental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test anxiety were positively related to each other.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test anxiety. Furthermore,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or male students, but a full mediating effect for female students. The implications for parents, teachers, and school counselors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high school students, parental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test anxiety

* This work was the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